

성령은 움직임입니다

캐슬린 몰라로, OFS

국가형제회 프란치스코 청소년 및 청년 위원회 의장

“성령은 이 땅 전체에 걸쳐 한 움직임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옛날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나이를 드러내지만, 하여튼 이것은 여전히 훌륭한 노래이며 우리 시대에도 매우 적절합니다.

프란치스코 청소년 및 청년 위원회 (FYFA)는 지난 1년 반 동안 지구형제회 FYFA 활력자에게 젊은이에게 접근하는 이유, 방법 및 수단을 소개했습니다. 열한 개의 가상 교육 수업과 매달 후속 발표는 우리의 젊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확실히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양성은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정보로 시작하고; 양성의 과업을 헤쳐 나갑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께 도움과 인도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단계를 공유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자신감의 결핍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누락된 것은 이 모험에서 우리의 향해자로서 성령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복음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회 모임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말씀 “깨끗하게 되고 내면으로 깨달음을 얻고, 성령의 불꽃으로 점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것이 800년 전 기념 프로포시티 (Memoriali Propositi)의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회개하는 이들은 거룩함과 복음 생활에 대한 소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상세한 회칙 목록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오래된 지침 목록에서 발견된 것을 우리의 1978 회칙의 필수적인 것에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옷에 관한 회칙은 겸손과 초연함에 대한 요청에 적용됩니다. 금식, 성사의 참여, 엄격한 기도에 관한 회칙은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죽은 사람을 묻는 것에 관한 지침은 우리 시대에도 봉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게 합니다.

¹ 교황 프란치스코, “Christus Vivit, 젊은이와 하느님의 온 백성들에게,”(리브레아 편집 바티카나, 2019)

우리는 특히 요즘 우리의 소명을 생활하고 젊은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령에 대한 이 간청을 감사하게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도적 권고, *Christus Vivit, To Young People and the Entire People of God*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 젊은 사람들과 하느님의 온 백성에게)에서 우리들이 매일 성령께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을 받아드리면 우리의 필요한 것이 올 것임을 상기 시켜줍니다.¹

2023년 8월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YouFra 국제 모임과 세계 청소년의 날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성령을 부르는 주제가 명백합니다. 주제는 "마리아가 일어나서 서둘러 갔다"(루가 1:39)는 성모의 "예"와 그녀의 사촌 엘리자베스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회상합니다. 이 행사의 주제곡인 "Há Pressa no Ar"는 "분주한 분위기가 감돌다"는 의미이며, 가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이끄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가 맞보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앙의 말씀과 진리가 "성령의 활동 하에" 성장한다는 주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예"는 그녀를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쓰이도록 이끌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간단한 기도는 '주님, 당신이 원하는 것, 원할 때, 당신이 원하는 방법'이 이뤄지소서' 이어야 합니다."²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예"라고 대답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이사 40:31) 여러분의 노력에 있어서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묵시 22: 21)

² 교황 프란치스코, 일반 알현, 2020년 11월 18일